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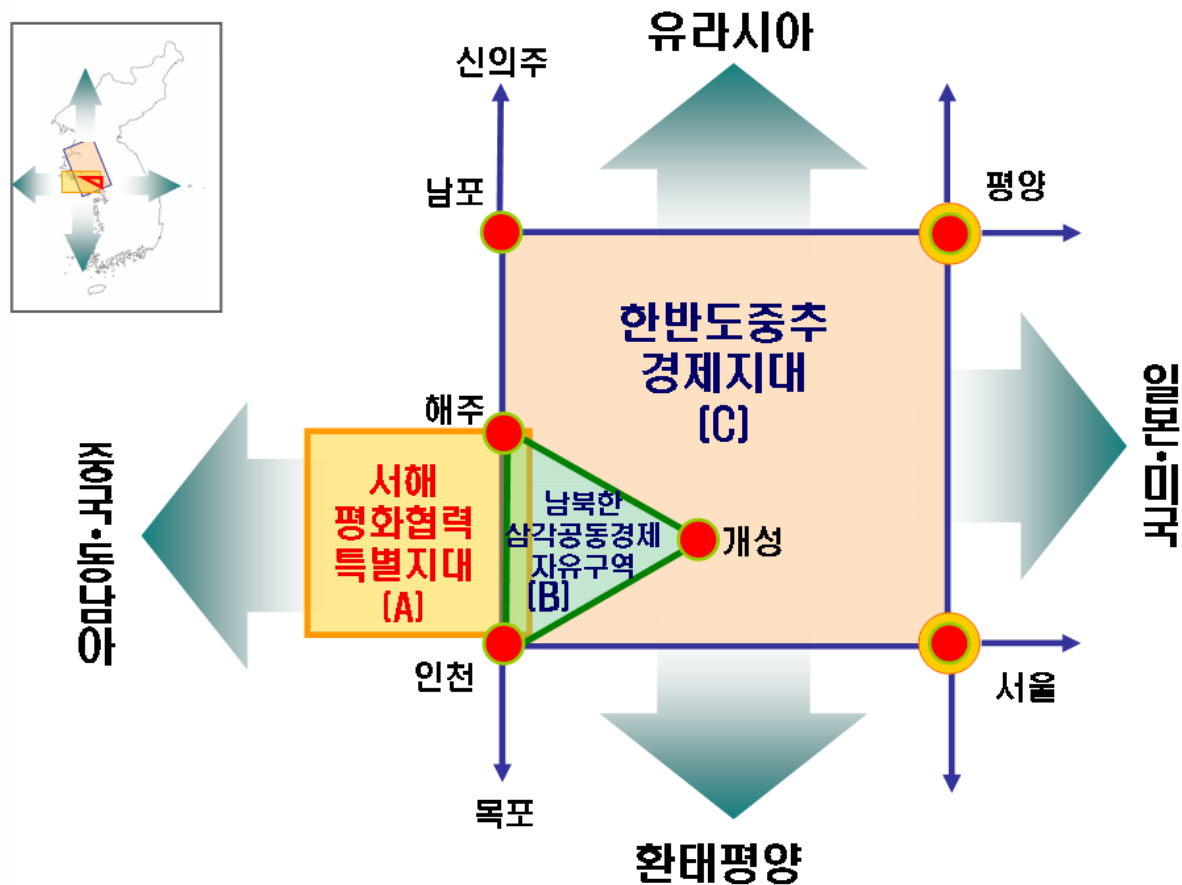
한반도와 동북아 공동시장 차원에서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비전과 발전구상

- 「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」는 남북 경제공동체 구축의 기초여건인 평화보장이 이루어지는 시발점으로 향후 한반도 전역의 평화정착의 전초기지 역할
-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해주·개성·인천을 연계한 「남북한 삼각 공동경제자유구역」의 전제가 되는 평화기반을 조성하고 서울·평양·남포·인천을 잇는 「한반도중추경제지대」의 초석
 - 해주경제특구와 기존 경제특구인 개성과 남한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는 인천을 전략적으로 연결하여 「남북한 삼각 공동경제자유구역」을 조성
 - 남북한 삼각 공동경제자유구역은 남북한의 수도인 서울과 평양을 포함하고 양 수도 최인근의 연안도시인 남포와 인천을 포괄하는 「한반도중추경제지대」로 발전
 - 「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」- 「남북한 삼각 공동경제자유구역」- 「한반도중추경제지대」는 패키지로 발전하여 남북의 공동발전·하나의 한반도 공동시장으로 가는 「창조적 한반도시대」를 견인
- 이러한 구상이 장차 동북아 공동시장을 향한 ‘동북아지중해구상’으로 실천되어야 함

□ A·B·C 구상

-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(A) ⇒ 남북한 삼각 공동경제자유구역(B)을 구축 ⇒ 한반도중추 경제지대(C)로 발전

[그림 2] A·B·C 구상



-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교두보
 - 남북한 경제공동체 창조를 통한 남북 경제협력의 획기적 성취를 위해서는 남북한 평화여건 확보가 선결되어야 함
 -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남북 경제공동체 구축의 기초여건인 평화보장이 이루어지는 시발점으로 향후 한반도 전역의 평화정착의 전초기지 역할
- 해주-개성-인천을 연계한 「남북한 삼각 공동경제자유구역」은 한반도의 전략적 국제관문
 - 서해평화특별지대가 한반도 평화의 전진기지로 변모함에 따라 남북한 경제협력 및

대외경제의 거점확보 가능

-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속의 핵심경제거점인 해주를 한반도 대외경제특구로 개발
 - 해주경제특구와 기존 경제특구인 개성과 남한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되는 인천을 전략적으로 연결하여 남북한 삼각 공동경제자유구역을 조성
 - 남북한 삼각 공동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시대에 무한창출되는 부가가치를 한반도로 몰아오는 동시에 대외진출의 전략적 국제관문(Global Gateway) 기능을 담당
- 「한반도중추경제지대」의 경제적 요충지
- 남북한 삼각 공동경제자유구역은 남북한의 수도인 서울과 평양을 포함하고 양 수도 인근의 연안도시인 남포와 인천을 포괄하는 한반도중추경제지대로 발전
 - 한반도중추경제지대는 북으로는 유라시아, 동으로는 미국·일본, 서로는 중국·동남아, 남으로는 환태평양 지역과 연계되는 세계적 교류중심지로 조성

2. 한반도 공동시장 구상

-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와 남북한의 균형된 발전을 효율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남한에 5+2 권역, 북한의 6개 권역으로 구성되는 한반도 13개 초광역경제권 발전체제를 구축하여 한반도 공동시장으로 발전

○ 한반도 공동시장의 의의

-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남북한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여 공동시장으로 발전

○ 남한은 5+2권역 체제, 북한은 6권역 체제

- 남북한 각각 거점도시, 행정구역, 수도,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 전역에 13개의 초광역경제권을 설정
 - 남한: 수도권, 충청권, 서남권, 대경권, 동남권, 강원권, 제주권 등 7개 권역(5+2)
 - 북한: 황해권, 평남권, 원산권, 평북권, 자양권, 동북권 등 6개 권역

[그림 3] 한반도 공동시장(Common Market) 구상



- 각각의 초광역경제권은 지역 내에서 기술 - 인력 - 생산이 결합되어 고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다양한 일자리가 유발되는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거점
- 초광역 경제권을 연결하여 서해축, 남해축, 동해축을 구축하고 한반도 종단축과 중앙축을 형성함으로써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, 북방경제권을 효율적으로 활용
- 초광역경제권을 연결하는 도로 · 항만 · 철도 · 공항을 건설, 확충하고 특히 북한의 교

통망을 현대화하여 한반도 기반시설을 연결

-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「남북한 삼각 공동경제자유구역」(해주-개성-인천)은 북한의 황해권과 남한의 수도권에 걸치는 지역

-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성장은 장차 한반도 경제를 견인하고 나아가 동북아상생발전과 아시아 번영으로 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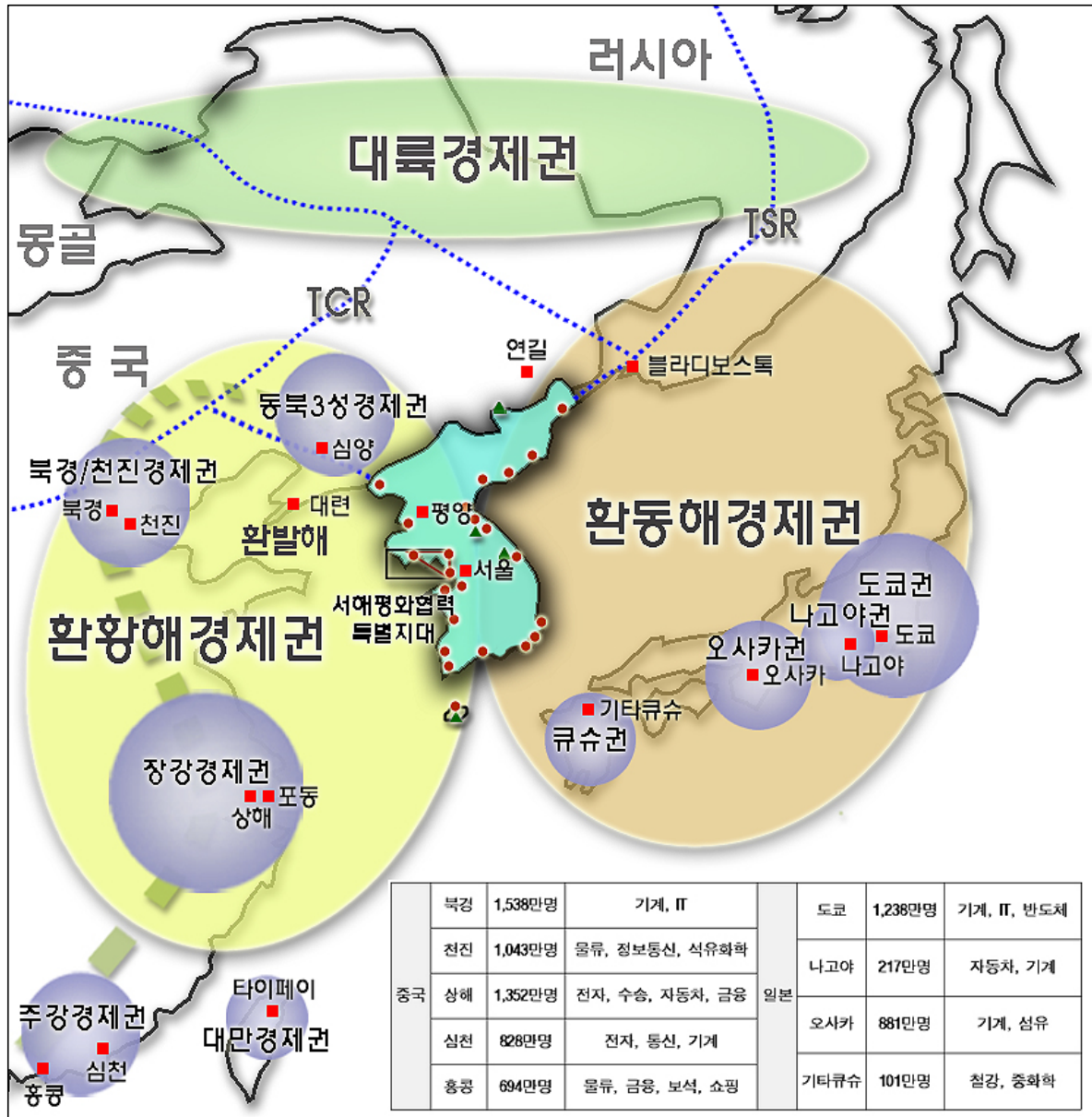
3. 동북아 공동시장: “동북아의 지중해”

- 한반도를 동북아 공동시장의 중심인 “동북아의 지중해”로 발전
 - 환황해·환동해경제권을 양 날개로 하는 총 인구 6.4억 명, 총 GDP 7조 달러의 거대한 동북아공동시장의 경제중심지로 발전

-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동북아 시장 속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장점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평화체제 구축의 전진기지이자, 공동경제번영의 핵심엔진
- 한반도는 동북아 경제권의 전략적 관문이자 십자로
 - 북으로는 유라시아경제권으로, 남으로는 환태평양으로, 서로는 환황해경제권으로, 동으로는 환동해경제권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천혜의 지정학적 요충지

- 환황해경제권: 중국 동부지역의 핵심경제권(동북3성, 북경·천진, 장강경제권)과 한반도 서부를 포괄하는 인구 약 5억 명, 총 GDP 1.4조 달러의 시장
- 환동해경제권: 일본과 한국의 동부지역, 러시아 연해주지역을 포함하여 인구 약 1.4억 명, 총 GDP 5.6조 달러의 시장
- 환황해+환동해경제권을 합치면 인구 6.4억 명, GDP 7조 달러의 거대한 동북아 공동체 시장을 형성

[그림 4] 동북아 공동시장(Common Market) 구상: “동북아의 지중해”



- 동북아의 중심으로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
 - 서울-상해 간 비행시간: 2시간, 거리 856km
 - 서울-북경 간 비행시간: 2시간 10분, 거리 936km
- 한반도가 보유한 전략적 관문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부각 가능
- 동북아 공동체 시장으로 진출입되는 부가가치를 몰아오고 세계시장을 향한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축이야말로 「창조적 한반도」를 향한 시대적 과제

- 남북한은 공동으로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이 양 날개로 구성되는 연 7조 달러의 동북아시장을 개척해야 함
- 한반도의 연안축을 따라 주요거점을 구축
 - 서해축: 해남·영암 - 목포·무안 - 새만금·군산 - 당진·평택 - 인천·개성·해주
- 남포 - 신의주 - TCR
 - 동해축: 부산-울산-포항 - 속초 - 금강산 - 안변 - 원산 - 함흥 - 단천 - 김책 - 청진
- 나진·선봉 - TSR
 - 남해축: 목포 - 여수 - 광양 - 마산·창원 - 부산

- 한반도 공간을 동북아 공동시장의 전략적 요충지로 재창조: 「창조적 한반도」 구상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함

● 국토연구원 박양호 부원장(031-380-0110, yhpark@krihs.re.kr)
 ● 국토연구원 동북아발전연구센터 이상준 연구위원 (031-380-0175, sjlee@krihs.re.kr)

- 본 브리프 내용은 2007. 11. 22 개최된 「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비전과 전망」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·보완한 것임.
- 내용 작성을 위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인사들께 감사드립니다.